이사회 회의록

2018년 2월 21일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이사회회의록

1. 일　　시: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오후 13시30분 ~14시30분
2. 소집일 : 2018년 2월 14일
3. 장　　소: 효광원 프로그램동 1층 쎄미나실
4. 출석현황

가 . 출석 이사 성명 : 심문길, 김현, 나봉균, 김정엽, 윤세중, 변창수

나 . 기타 참석자(감사 등) : 유흥식 위임참석, 박원규, 이재성

4. 심의의결 내용

의안번호	안건명	표결수				심의결과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제 1 호	2017년 법인·시설 세입세출결산안	7				가결
제 2 호	2018년 법인·시설 세입세출 1차추경예산안	7				가결
제 3 호	기타운영안	7				가결

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17 . 2 . 21.

대표이사 : 유 흥 식(인)

이　　사 : 나 봉 균(인)

이　　사 : 김　　현(인)

이　　사 : 심 문 길(인)

이　　사 : 윤 세 중(인)

이　　사 : 김 정 엽(인)

이　　사 : 변 창 수(인)

회의진행

성원보고

이사 김정엽 : 대표이사님의 위임, 이사 6분과 감사님 2분의 참석으로 효광원의 이사회의의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의 대리로 나봉균 사회사목국장 신부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사 나봉균 : 2018년 효광원의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의 인사는 대표이사님이신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께서는 주교회의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사님들과 감사님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사회의를 하게 되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올 한해 효광원이 주님 안에서 운영이 잘 되고 아이들이 이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3건의 의안이 있는데 한 번에 간결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심이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사 김정엽- 의안 심의 3건 시작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메일로 감사님들께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감사보고

감사 박원규 : 자료를 미리 받아 2017년도의 결산서를 이재성 감사님과 함께 다 보았습니다. 작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다양하게 잘 집행하였고 예산도 적절히 승인되고 잘 집행 되습니다. 자산대장도 다 살펴봤는데 효광원의 기본 재산도 잘 관리되고 보전 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호의안 2017년 법인 시설 세입세출 결산안]

이사김정엽 : 사무국장의 업무 보고 및 의안 심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먼저 제1호의안으로는 2017년도 법인 시설의 결산안, 제2호의안으로 2018년도 법인 시설 세입세출 제1차추경예산안, 기본재산현황에 대한 보고와 제3호의안인 기타운영안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의안 2017년도 업무실적에 은 7쪽부터 10쪽까지의 요약이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호의안인 법인 .시설 결산 안부터 말씀드리

겠습니다. 법인의 총세입결산액은 46,801,179원이며 총세출결산액은 차기이월금 21,792,469원을 포함하여 46,801,179원입니다. 법인의 잔액으로는 김영환 신부님께서 선종하시면서 효광원에 15,000,000원을 교구를 통해 법인 전입금으로 주신금액과 은행의 이자, 그리고 법인의 후원금 잔액인 6,783,345원입니다. 18쪽과 19쪽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의 총결산내역을 23쪽에서 보시면됩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각각 2,986,719,051이며 차기이월금 50,872,489원입니다. 세입과 세출내역은 총괄내역의 관 항 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의 잡수입이 많은 것은 법원의 위탁비용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합시스템의 시스템 상 자금의 원천을 잡을 곳이 없기에 자부담부분의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는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32,264,880원 총 세입에서 총 세출 31,891,680원 차기 이월금 373,2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총괄내역에 사무비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운영비 사업비에 각 자료와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상세한 후원금 사용내역은 34쪽에서 37쪽까지의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후원금 잔액 증명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이사 나봉균 : 법원의 지원금은 소중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법인 시설의 결산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윤세중 : 재청합니다.

이사 나봉균 : 모두 가하시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예로 답하여 가결됨을 선포함.)

[제2호의안 2018년 법인 시설 세입세출 제1차추경 예산안]

이사 김정엽 : 제 2호안인 2018년 법인 시설 세입세출 제1차추경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사무국장이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2018년도 법인의 세입세출 제1차 추경 예산안은 법인의 본예산인 이천칠백오십일만원 에서 이천칠백팔십구만이천사백육십원 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의 예산 의결을 구합니다. 제안사유는 전년도 이월금 증액 삼십팔만이천사백육십구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시설의 세입세출 제1차추경 예산안은 이십구억팔천육백오십구만칠천칠백십원에서 사천육백삼십구만칠천팔백삼십일원을 감액한 이십구억사천일십구만구천팔백칠십구원으로 편성한 내용의 예산의결을 구합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 본 예산은 예산내시가 없어 2017년도 사회복지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하여 3.5% 인상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2월에 사회복지생활 시설의 예산기준이 확정되어 전년

대비 약 2.5% 상향조정된 인건비 기준으로 감액하고 직원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도 대비 생계비 월 단가 217,292원에서 2,521원이 증액된 219,813원으로 확정되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전광역시의 특별운영보조금인 일용직의 부분인건비, 일숙직비, 주부식충당금의 기준변동으로 세목간의 변동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네 번째로 2018년도 본예산의 법인 전입금은 전년도 법인전입금의 이월로 삭감을 상정합니다. 이어 2018년도 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의 보고가 63쪽에 있습니다.

이사 김 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정엽 : 재청합니다.
이사 나봉균 : 모두 가하시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예로 답하여 가결됨을 선포함.)

[제3호의안 기타운영안]

이사 박원규 : 보조금 받는 집행내용에 대한 회계감사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는지요.
이사 김정엽 : 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나 구에서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으로 대전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박원규 :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공인 회계사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 김정엽 :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지 않았는데 알아봐 주시면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박원규 : 여기를 보니 시군구 보조금이 많은데 국고 보조금도 받고 있나요?
이사 김정엽 : 저희는 다 시군구에서 보조금을 책정 받습니다. 또한 생계비가 프로그램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나오기는 하나 다 시군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권위원회 권고도 되어있고 이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2층 침대가 전 숙소에 다 들어왔습니다. 2층 침대 58셋트 외관에 있는 분도 수도회에서 주문 제작하였고 분할에서 납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약간의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닌데 이천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재원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쓰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지원되는 위탁금 위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금중 11세트 값인 17,600,000원은 전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총액은 계약금액 구천만원에서 1층침대 10개 추가 7,200,000원 플러스 하면 구천칠백이십만원으로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원에서 지원되는 위탁금과 운영비에서 분할해서

침대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나봉균 ; 그동안 침대가 없었던 건가요?

이사 김정엽 : 네 그동안 침대가 없었습니다.

이사 나봉균 : 한번에 1억대 금액의 침대를 구매하는게 대단하시네요.

이사 김정엽 : 아동들의 필요에 의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김정엽 : 17~18년도에 법인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설 아동들 정원이 150명 인가가 되었는데 150명 수용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1인당 소요 면적이 3.3에서 6.6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숙소로는 불가하고 현재 115명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앞으로 효광원의 정원은 115명이고 직원수 대비 119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은 115명까지 조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이사 나봉균 : 숫자의 변경인가요? 무슨 의미가 내포 되었나요?

이사 김정엽 : 네 숫자의 변경입니다. 그 이상은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115명을 넘어가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사 나봉균 : 오늘은 아동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김정엽 : 현재115명입니다.

이사 나봉균 : 일년에 들어오는 아동들은 몇 명이 되나요?

이사 김정엽 : 250명 됩니다.

이사 나봉균 : 교정사무국에서 범죄예방교육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사 김정엽 : 교정사무국에서 하는 범죄예방교육은 성인들 위주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청소년들에게 범죄예방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들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년법에 정하는 미성년자는 범죄적인 측면보다 그이외의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이 더 많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동들이 범죄예방교육에 포함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 아동들의 연령으로 봐서는. 범죄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심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 나봉균 : 원장님 말씀대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보입니다. 범예방 교육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없겠만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사 김정엽 :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년법을 없애라, 사회적으로 더 강경하게 처벌해라,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효광원 아동들을 직접상담하면서 물어봐도 처벌이 강화가 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동

들의 대답입니다. 그 아동들의 판단력이 아직까지는 자기를 통제할 성인이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 환경에 따라 아동들이 행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처벌을 강화하느냐 안하느냐는 아니지 않나 보여집니다. 범죄예방교육을 하려면 부모교육을 즉 사회 인프라적으로 가정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부분이 최고 예방인거 같고 아동들이 제도권으로 탈락 안 되게 하는게 필요합니다.

이사 나봉균 : 저도 막연히 볼 때 교정 사목국에서 필요해 보이고 국회의원이든 관계자든 만나서 진행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보다 아까 말씀하신 나와서 갈데없는 아동들 위한 시설을 연계 하면서 케어 해주는게 차라리 숫자는 미미해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이사 심문길 : 사업실적에 보면 원생들이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데 원생들이 효광원에 입소해서 생활하면 긴장감이 있나요??

이사 김정엽 : 가능한 한 긴장감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동들이 올 때는 강제로 오고 사실 생활하는 것도 감시나 엄한 분위기에서 생활합니다. 아동들이 스스로 적응하고 버티고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로 바꿔 주려고 합니다.

이사 심문길 : 소년원을 몇 번가봤는데 거기는 완전 교도소입니다. 철문이 여러 개 지나가야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교화가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탈출생이 생겼는데 지금도??

이사 김정엽 : 지금도 있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게 하며 그러한 과정을 프로세스를 통해 아동들이 겪다보면 자신들이 모르게 사이에 변화되고 성장됩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효과가 좋은 아동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동들도 있는데 환경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전국 소년부 판사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성과나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정원이 항상 채웁니다.

이사 심문길 : 혹시 불평, 불만 여론조사를 하나요?

이사 김정엽 : 주로 설문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각각 개별적으로 많이 합니다. 설문방식으로 전체적인 의견 및 욕구조사도 시행합니다.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면 해결해주고 안되는 이유는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 나봉균 : 긴장감 이란게 공동체에서 느끼는 제한된 공간에서 오는 긴장감이겠죠?

이사 김정엽 : 긴장감을 가능한 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모역활, 선생님역활, 친구역활이 필요로 합니다.

이사 심문길 : 유교사상중에 진인사 대천명이 있는데 사람의 한 도리를 다하고 기다리란 의미인데 효광원 사업역시 참 힘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사 이재성 : 실적보고를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6개월 만에 퇴소를 하면 효과가 있나요? 시간이 짧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이사 김정엽 -대부분 엄청난 변화를 얻고 나갑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타이

틀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 이재성 : 시간이 부족할거 같아 보입니다.

이사 김정엽 : 저희 같은 보호치료시설에 법원 6호 수탁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일단 아직까지도 롤 모델이 되고있습니다.

이사 박원규 : 국토 순례는 2번 하나요? 인원은?

원장 김정엽 :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누워 2번가고 있습니다. 다는 못가고 인원선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사 나봉균 :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폐회 하고자 합니다. 전원 동의하시면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에로 답변)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시간 2018년 2월 21일 오후 14시 30분

대표이사 : 유 흥 식(인)

이 사 : 나 봉 균(인)

이 사 : 김 현(인)

이 사 : 심 문 길(인)

이 사 : 변 창 수(인)

이 사 : 윤 세 중(인)

이 사 : 김 정 엽(인)

기 록 자 : 사무국장 권명자